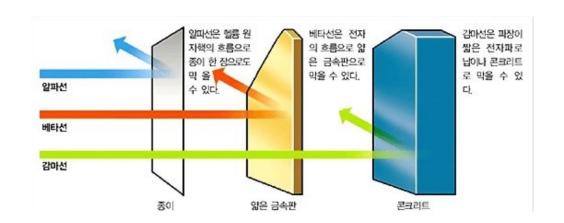
방사선

- 방사성 동위원소 (放射性 同位元素, radioactive isotope, radioisotope)
 - <mark>방사선</mark>을 방출하여 안정 핵종(安定 核種, stable nuclide) 혹은 안정 동위원소(安定 同位元素, stable isotope)이 되는 불안정한 원자
 - 방사성 핵종 (放射性 核種, radionuclide, radioactive nuclide)으로도 불림

- 방사선 (放射線, radiation)
 - 전리 방사선 (電離 放射線, ionizing radiation)
 - 알파선 (alpha radiation)
 - 베타선 (beta radiation)
 - 중성자선 (中性子線, neutron radiation)
 - 엑스선 (x-ray)
 - 감마선 (*γ*-ray)
 - 비전리 방사선 (非電離 放射線, non-ionizing radiation)
 - 자외선, 가시광선, 적외선, 전파, ...
 - * 전리방사선은 이온화 방사선, 비전리 방사선은 비이온화 방사선이라고 부름



- 동위원소 (同位元素, isotope)
 - 원자번호(Z)는 같고 질량수(A)가 다른 원소
 - 전자와 양성자 수(z)는 동일
 - 중성자 수(N)가 다름

$$A = Z + N$$

- 원자 기호 표기
 - 원자 기초 X

$$_{7}^{A}X$$
 or $X-A$

• 안정 동위원소 (安定 同位元素, stable isotope)

$$\begin{cases} {}^{54}_{26}Fe & or & Fe-54 \\ {}^{56}_{26}Fe & or & Fe-56 \\ {}^{57}_{26}Fe & or & Fe-57 \\ {}^{58}_{26}Fe & or & Fe-58 \end{cases}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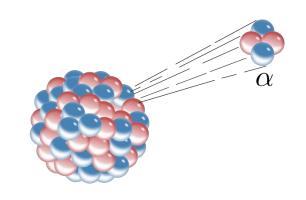
• 방사성 동위원소 (放射性 同位元素, radioactive isotope, radioisotope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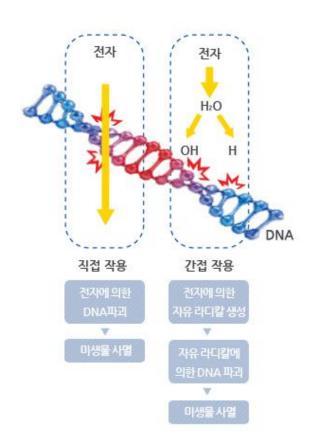
$$\begin{cases} {}^{39}_{19}K & or & K-39 \\ {}^{40}_{19}K & or & K-30 \\ {}^{41}_{19}K & or & K-41 \end{cases}$$

• K-40 : 방사성 동위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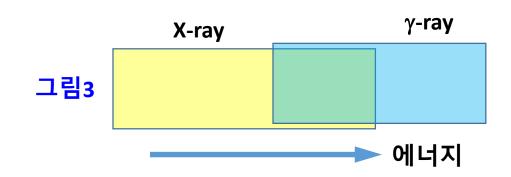
• K-39, K-41 : 안정 동위원소

- 알파선 (alpha radiation 혹은 alpha particle 혹은 α)
 - 2개의 중성자(neutron)와 2개의 양성자(proton)으로 구성 → +2 전하량
 - He-4 핵(nucleus)과 동일
 - 피부의 외피를 뚫을 수 없음
 - 해가 없음
 - 호흡, 삼킴 혹은 피부 상처를 통하여 알파 방사체가 체내에 침투
 - 세포와 DNA애 매우 심한 손상
- 베타선 (beta radiation 혹은 beta particle 혹은 β^-)
 - 전자 (電子, electron)으로 구성 → -1 전하량
 - 옷이나 얇은 알미늄 판에 의해 투과가 저지
 - 인체 외부에서는 세포와 DNA에 알파선보다 약한 손상
 - 호흡이나 삼킴에 의해 베타 방사체가 체내에 침투
 - 세포와 DNA애 매우 위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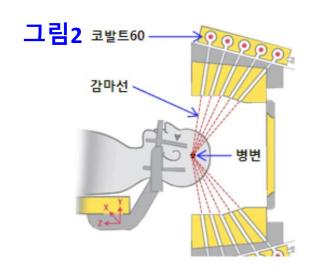


- 엑스선 (x-ray)
 - 전자기파의 일종
 - 원자를 구성하는 궤도 전자의 에너지 차에 의해 방출
 - 세포와 DNA에 심각한 손상을 줌
 - 단층 촬영과 암치료에 사용
- 감마선 (gamma radiation, gamma ray, γ-ray)
 - 전자기파의 일종
 - 원자핵을 구성하는 핵자(양성자, 중성자)의 에너지 차에 의해 방출
 - 방사성 붕괴(放射性 崩壞, radioactive decay)할 때 알파선, 베타선, 중성자선 등의 방사선과 함께 방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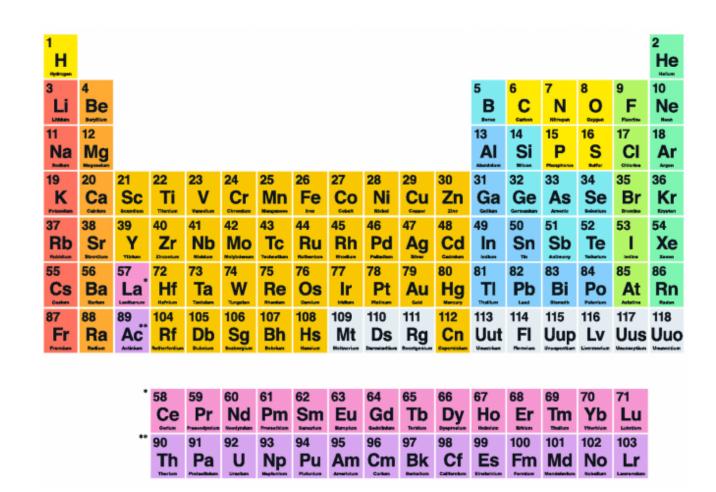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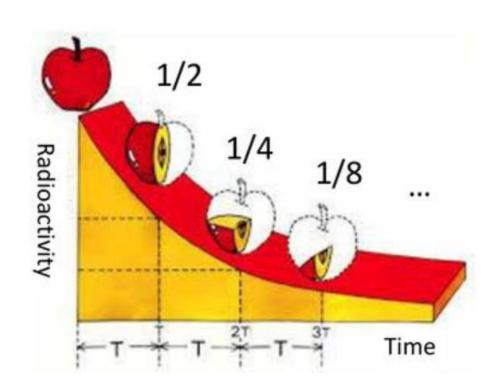


• 방사성 동위원소 분류

- 천연 방사성 원소
 - 원자번호 83~92번까지의 원자들
 - 원자번호가 낮은 원자들
- 인공 방사성 원소
 - 원자번호 93번 이상의 원자들



- 반감기(半減期, half-life)
 - 방사성 동위원소 원자는 개별적으로 방사선을 방출하여 다른 원자로 변함
 - 이런 원자 변환은 원자들 사이에 무작위로(randomly) 일어남
 - 반감기 *T*정의
 - 방사성 동위원소가 ½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



Nuclear species	Element symbol		Half-life T	
Iodine	¹³¹ ₅₃ I	I-133	8 days	
Cesium	¹³⁴ ₅₅ Cs	Cs-134	2 years	
	¹³⁷ ₅₅ Cs	Cs-137	30 years	
Strontium	⁹⁰ ₃₈ Sr	Sr-90	29 years	
Plutonium	²³⁹ ₉₄ Pu	Pu-239	24,000 years	
Uranium	$^{235}_{92}U$	U-235	700,000,000 years	
	²³⁸ ₉₂ U	U-238	4,500,000,000 years	
Tritium	³ ₁ H	H-3	12.3 year	

• 우라늄 (U, uranium)의 동위원소

- 알파선 (α)
 - 핵에서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빠져 나가니 원자번호 Z는 2만큼 감소, 질량수 A는 4만큼 감소
- 베타선 (β[−])
 - 핵에서 전자가 빠져 나가니 원자번호 Z는 1만큼 증가

isotope	abundance	Half-life	Decay mode	product
$^{234}_{92}U$	0.005%	$2.455 \times 10^5 y$	α	$^{230}_{90}Th$
$^{235}_{92}U$	0.720%	$7.04 \times 10^8 y$	α	$^{231}_{90}Th$
²³⁸ ₉₂ U	99.274%	$4.468 \times 10^9 y$	α	$^{234}_{90}Th$
	33.274/0		eta^-eta^-	²³⁸ ₉₄ Pu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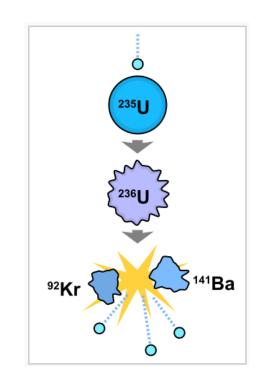
- Abundance는 자연에 존재하는 비율인데 반감기가 길수록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이해가 됨
- U-234의 반감기는 24만년인데 존재 비율이 낮고, U-238은 존재 비율은 높은데 44억년 이상의 반감기가 되니 천연 상태의 우라늄은 그리 위험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음
- 위의 동위원소 이외의 동위원소
 - $^{232}_{92}U$, $^{233}_{92}U$, $^{236}_{92}U$

- U-235 (²³⁵₉₂U) 핵 반응
 - 자연에 존재 비율 0.72%

• 자연 붕괴:
$${}^{235}_{92}$$
U $\xrightarrow{\alpha}$ ${}^{231}_{90}$ Th $\xrightarrow{\beta^-}$ ${}^{231}_{91}$ Pa $\xrightarrow{\alpha}$ ${}^{227}_{89}$ Ac ${}^{7.038\times10^8}_{91}$ y

- 핵분열 (核分裂, nuclear fission)
 - U-235을 중성자와 반응

$$^{235}_{92}U + ^{1}_{0}n \rightarrow ^{92}_{36}Kr + ^{141}_{56}Ba + 3^{1}_{0}n + 202.5MeV$$



- U-235 원자 한 개의 핵분열에 의해 발생하는 에너지 202.5 MeV
 - → 우라늄 1g이 핵분열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는 석탄 3톤, 석규 9드럼을 태울 때 나오는 에너지에 해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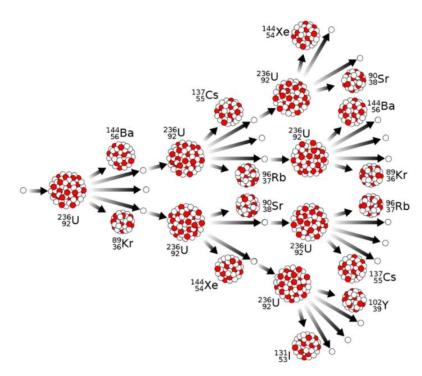
- U-235의 핵분열 (核分裂, nuclear fission)
 - 핵분열에 의해 중성자 수가 3배씩 증가
 - 중성자들은 다른 핵분열의 방아쇠 역할
 - 핵분열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연쇄 반응이라 부름

• 원자로

- 중성자 감속재로 연쇄 반응 조절
 - 경수 (light water, 75% 원자로 채택한 중성자 감속재)
 - 보통 우리가 먹는 물(H2O)
 - 고체 흑연 (20% 원자로가 채택한 중성자 감속재)
 - 중수 (heavy water, 5% 원자로가 채택한 중성자 감속재)
 - 물 (H2O)에서 H가 중수소
- U-235를 농축(濃縮)한 농축 우라늄(2~4%)을 연로로 사용

• 원자폭탄

- U-235를 최소 60% 이상 농축
- 폭탄으로서 동작하는 임계질량 54 kg



- 플루토늄-239 (Plutonium-239, Pu-239, ²³⁹₉₄Pu)
 - 자연적으로 풀루토늄은 아주 적은 양으로 우라늄 광석에 존재
 - U-238을 많은 수의 중성자에 노출시켜 얻음

$${}^{238}_{92}U + {}^{1}_{0}n \rightarrow {}^{239}_{92}U \xrightarrow{\beta^{-}}_{23.5 \, min} \rightarrow {}^{239}_{93}Np \xrightarrow{\beta^{-}}_{2.356 \, d} \rightarrow {}^{239}_{94}Pu$$

$${}^{239}_{94}Pu + {}^{1}_{0}n \rightarrow {}^{240}_{94}Pu \rightarrow {}^{103}_{40}Zr + {}^{134}_{54}Xe + 3 {}^{1}_{0}n + 207.1 \, MeV$$

• 핵분열 시 U-235보다 많은 중성자를 생성 → 우라늄에 비하여 임계질량이 낮음 (16 kg)



• U-235의 핵분열 생성물 (fission product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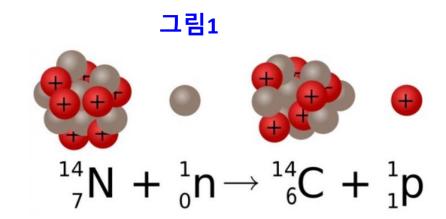
$$^{235}_{92}U + ^{1}_{0}n \rightarrow ^{92}_{36}Kr + ^{141}_{56}Ba + 3^{1}_{0}n + 202.5MeV$$

- 위의 반응은 85% 일어남
 - 생산량(yield)은 85%
- 다른 생성물 중 일부는 표와 같음
 - I-131, Cs-137 휘발성
 - 생산량(yield)이 크고, 반감기 (half-life)이 긴 것이 문제
 - Cs-137, Sr-90 모두 방사선 에너지가 커서 인체에 치명적
 - Sr-90을 섭취하면 뼈에 칼슘과 비슷하게 작용하여 계속 축적
 - 생산량이 크지만 반감기가 짧은 I-131
 - 반감기가 짧아 몇 주 지나면 염려 없음
 - 호흡을 통해 인체에 들어와 갑상샘에 영향



Fission products	Yield (%)	Half-life	Decay energy (keV)
Cs-137	6.337	30.23 years	1176
Sr-90	4.505	28.9 years	2826
I-131	2.8336	8.02 days	971
Sm-151	0.5314	0.5314 years	77
Kr-85	0.2180	0.2180 years	687
Eu-155	0.0803	0.0803 years	252
Cd-113m	0.0008	0.0008 years	316
Sn-121m	0.00005	0.00005 years	390

- 탄소-14 (carbon-14, C-14, ¹⁴₆C)
 - 우주선 : 우주에서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방사선
 - 지상 9km 상공에서 우주선에 의해 중성자가 생성
 - 중성자가 질소-14와 반응
 - → 즉각적으로 ¹⅙C 생성 (그림1)
 - → 14℃ 양이 일정하게 유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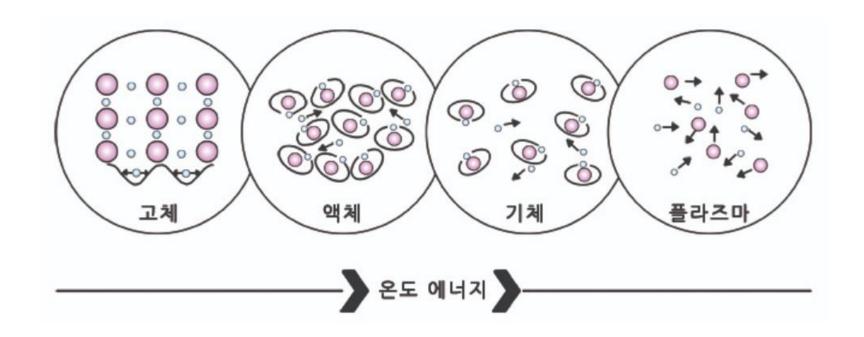


- ¹⁴₆C
 - 베타선을 방출하고 ¹⁴N이 되는 반감기 5730년
 - 유기물 시료 속에 존재하는 다른 탄소 동위 원소와 비율을 조사하여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법에 사용 (대략 5만 년까지의 연대 측정)
 - 14c이 미량이라서 이 양의 정밀측정이 연대측정의 정확도 결정

isotope	abundance	Half-life	Decay mode	product
¹² ₆ C	98.93%	stable	stable	
¹³ ₆ C	1.07%	stable	stable	
¹⁴ ₆ C	<10 ⁻¹²	5,730 <i>y</i>	eta^-	$^{14}_{7}{ m N}$

• 유튜브 동영상 : 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fM059Z4bx2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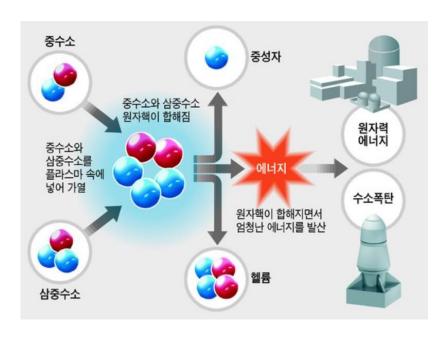
- 플라즈마 (plasma)
 - 열을 계속 가하면 고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 그리고 기체 상태로 변함
 - 열을 더 가하면 원자핵(+전하)과 전자(-전하)로 구성된 플라즈마가 됨
 - 전자는 열에너지에 의해 매우 빨리 움직임
 - 전자와 원자핵 사이에 인력(引力, attractive force)이 작용하여 원자(原子, atom)로 재결합하는 것을 전자의 빠른 움직임이 방해하여 계속 플라즈마 상태가 유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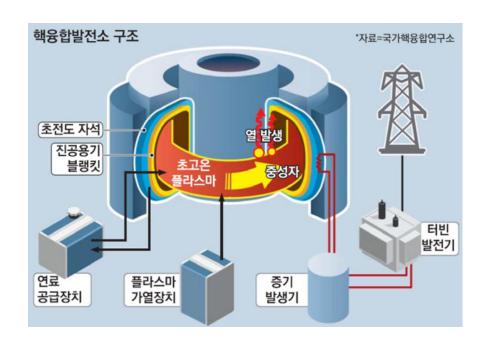
- 핵융합 (核融合, nuclear fusion)
 - 플라즈마 온도를 수 억도로 올림 (고온 플라즈마라 부름)
 - → 원자핵의 움직임 매우 빨라짐
 - → 원자핵의 빠른 움직임은 원자핵 사이의 척력(斥力, repulsive force)을 극복하고 충분히 가까워져 충돌(衝突, collision)
 - → 핵융합이 일어남
 - 중수소(${}^{2}H$)와 삼중수소 (${}^{3}H$) 를 고온 플라즈마에서 핵융합
 - 헬륨 (3He)과 중성자 (1n) 및 17.59 MeV 에너지 방출

$${}_{1}^{2}H + {}_{1}^{3}H \rightarrow {}_{2}^{4}He + {}_{0}^{1}n + 17.59 MeV$$

- 수소 1g의 핵융합 에너지
 - 석탄 21톤
 - 석유 60 드럼
- 태양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발생 원리



- 국가핵융합연구소 (NFRI)
 - 2007년 차세대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 '케이스타(KSTAR)'를 완공
 - 플라즈마 온도 3억도
 - 플라즈마 지속시간 300초
 - 아직은 연구 단계
 - 핵융합이 주목 받는 이유
 - (1) 매우 높은 연료 효율
 - 핵융합의 약 7배 에너지 얻음
 - (2) 매우 풍부한 연료의 매장량
 - 연료는 바닷물
 - (3) 매우 높은 안정성
 - 대형사고 발생 위험이 전혀 없음
 - (4) 매우 높은 환경 친화성
 - 유해물질을 거의 발생시키지 않음



• KSTAR 유튜브 영상: https://youtu.be/jsDHYvsAg-8